

2017년 3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

일시 : 2017.3.24(금) 12:00~13:00

■ 주요 회의 내용

▲ 보도의 균형성과 다양성 제고해야

- 너무 정치뉴스에 편중돼 있음. 책이나 영화, 뮤지컬, 미술 등 문화 기사도 다양하게 다루면 좋겠음(주철환 위원)
- 개인적으로 대통령 탄핵 보다는 하야가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,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음. 대통령 탄핵심판 전날 연합뉴스TV에서 하야도 꼭 막힌 시국을 푸는 해법 중의 하나로 보도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함. 타 방송사에서는 다른 곳도 있었음. 가능성이 적다하더라도 하야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루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함(김용직 위원)

▲ 속보 및 현장 연결시 화면구성 유의

- 뉴스 속보를 남발하는 인상이 없지않아 있음.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당시 붉은 글씨로 "특이사항 없이 조사 진행 중" 이란 속보를 반복해서 내 보냈고, 좌측 상단에 같은 내용의 작은자막(좌상 롤링)을 시차를 두고 내보내 시청자 입장에서 시각적으로 혼란스러움을 느꼈음(신현택 부위원장)
- 긴박한 현장을 라이브로 연결할 때 기술적 요인 때문이겠지만 가끔 화면이 깨져보이는 경우가 있음.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화면이 너무 깨질 때는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신경을 썼으면 함(주철환 위원)
-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당시 영상이 너무 흔들려서 어지러움을 느꼈음. 생생한 영상도 좋지만 일부는 어지러울 정도로 화면이 흔들려서 보기 힘들었음.
-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해 화면이 지저분해보일 때가 있음. 예를 들어 박 전 대통령 조사시간이 몇 시간 지났다는 디지털시계와 연합뉴스TV 로고, 빨간 속보자막, 아래 스크롤 등 너무 많은 내용이 한 화면에 들어있어 정신 없어 보일 때가 있었음(주철환 위원)

▲ 자막, 잘못된 표현 등 개선 필요

- 띄어쓰기의 정확성과 일관성 유지에 보다 더 신경 써야함 (예) 박 전 대통령 vs 박 전대통령, 36만명 vs 36만 명, 5만원 vs 5만 원, 22시간만에 vs 22시간 만에, 재난 문자 vs 재난문자, 시험인양 성공 시 vs 시험인양 성공시 등(김상선 위원)
- 22일 방송내용 중 '뉴스특보 조금전 박 전대통령 귀가 모습' 자막이 귀가 후 3시간 가량 지난 후에도 여전히 떠있었으며, 낮 뉴스 중에도 이 화면을 재방송

표시 없이 그대로 내보낸 것은 시청자들의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(김상선 위원)

- 화면에 자막이 여러 개가 나올 경우가 있는데, 대담 토론시 나오는 속보 자막이 마치 토론 내용인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(김용직 위원)
- 가끔 속보자막 등에 오·탈자가 있는 경우가 있음. 빠른 소식 전달도 중요하지만 맞춤법은 정확해야 함(주철환 위원)
- '구속영장 신청'에 관한 앵커 멘트에서 구속영장을 법원이 아닌 피의자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돼있는 게 몇 차례 있었음. 좀 더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(이재경 위원)
- 자막에 '재계'가 19대 대선후보에게 무언가를 건의하고 요청한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통상 '재계'는 10대 그룹에 속한 기업집단을 지칭하므로 '경영계'로 표현을 바꿔주었으면 함(박동민 위원)
- 박 전 대통령 검찰조사 관련 내용에서 기자가 삼성동 사저로 갔다고 전했는데 사실 사저보다는 자택으로 표현해야 옳음. 사저는 관저에 대비되는 표현인데 관저가 없으므로 자택으로 표현해야 함(박동민 위원)
- 자막 중 '미 항모 전단 한반도 전개' 라는 내용이 있었음. 대략의 내용은 알겠지만 '항모' '전단' '전개' 같은 표현을 일반인들이 얼마나 이해할지 의문스러움. '항공모함' 등으로 풀어서 써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음(박정숙 위원)
- 자막을 쓸 때 '전 대통령, 중 관광객, 북 추가도발' 등과 같은 경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前, 中, 北 등은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람(김상선 위원)

▲ 프로그램 기획 제언

- 3월의 큰 이슈들을 뉴스 차원에서 다뤄보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짚어보는 기획 프로그램을 시리즈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함.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선진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,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짚어주면 시청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(이태식 위원장)
- 날이 풀리면서 주말에 다양한 스케치 기사를 다루는 것도 좋겠음. 고속도로 정보 보다는 봄을 느낄 수 있는 스케치 기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(주철환 위원)

▲ 앵커 및 리포트 관련 의견

- 방송의 기본이 바른말 고운말인 만큼 지속적으로 앵커와 기자들에게 유의하도록 교육하고 주의를 환기시켰으면 함(이태식 위원장)
- 앵커들이 대체로 젊은 만큼 부장급 이상의 연륜 있는 앵커도 필요하다고 생각됨(주철환 위원)
- 좀 더 다양한 패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. 매시간 뉴스가 이어지는데 비슷

한 패널들이 비슷한 문답을 주고받을 때가 있어 틀에 박힌 듯한, 관성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음(주철환 위원)

- 패널의 경우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안으로 잠기는 분이 있었음. 볼륨을 높여도 들리지 않을 정도인데, 방송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디오도 중요한 만큼 신경을 썼으면 함(박동민 위원)

▲ 긍정 의견 등 기타

- 최근 대형 이슈가 이어졌는데, 타 방송사와 비교해 봤을 때 연합뉴스TV가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보도하는 느낌을 받았고 대담토론에서 패널들이 흥분하지 않고 토론을 하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았음(이태식 위원장)
- 남녀 앵커 두 사람이 진행하는, 밤에 방송되는 '뉴스리뷰' 프로그램에서 앵커 한 명이 뉴스꼭지 하나의 앵커 멘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음. 시청자 입장에서 앵커가 뉴스를 소화해서 전달하는 것 같아 신뢰감을 느꼈음(이태식 위원장)
- 21일 전 대통령 검찰 소환 뉴스를 속보로 보도하면서 영상과 속보 자막에서 신속·정확한 면이 돋보였음(신현택 부위원장)
-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형식의 뉴스들이 보이는데 어려운 대선 뉴스를 쉽게 설명해줘서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짐(주철환 위원)
- 화면이 최근 세련돼 보이고 깔끔해 보임.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다보면 화면도 좋아지고 프로그램 전체도 돋보일 것으로 기대됨(박동민 위원)
- '투나잇23' 앵커가 스크린 앞에서 시원한 화면에 기승전결로 집중력 있게 이끌어가는 코너가 있는데 많은 준비를 해 깊이있게 전달해 좋게 느껴졌음(박정숙 위원)
- 대선 상황실 프로그램이 새로 만들어졌음. 타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보면 이슈에 대한 설명보다는 정치적인 쟁점을 이야기 하는데 이번은 조기 대선이다 보니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음.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나 그림으로 도식화해 제공하고 상세히 설명해줘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줬다는 느낌을 받았음(박정숙 위원)
- 뉴스에서 날씨로 넘어가는 순간 오디오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음. 오디오 레벨을 세심하게 맞추다면 좋을 것 같음(박정숙 위원)

. (끝)